

스포츠 포커스

광주 육상의 대부 심재용 광주시청 감독



'1등 광주육상' 향해 오늘도 뛴다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감독이 지난 22일 광주시청 육상 대표 선수들과 함께 스티트 자세 교정 훈련(위)과 복근 강화 운동을 지도하고 있다.

"지도자의 가장 큰 덕목은 선수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와 선수간의 신뢰만 형성되면 기록 향상은 자연스럽게 이뤄집니다."

광주 육상의 대부로 불리는 심재용(48)광주시청 육상감독이 밝히는 지도자 덕목이다.

짙은 눈썹과 호안(약간 찡그린 듯한 인상의 심감독이 밝힌 지도자의 덕목은 약간은 의외였다. 강한 인상대로 선수들을 스파르타식으로 다그칠 것 같지만 알고보면 그는 '옹장'이 아닌 '덕장'이었다.

'육상에 미친 사나이' '스카우트의 귀재'로 불리우는 심감독을 지난 22일 제88회 광주전국체전 메달획보를 위해 훈련이 한창인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만났다.

"은사인 최병량 선생님과 김응식 교수님도 계신데..." 라며 한사코 인터뷰를 거부했던 심감독의 트레이드 마크가 된 '육상에 미친 사나이'라는 호칭은 선수들에 대한 남다른 사랑과 옥심 때문.

심감독은 여전 삼일중 1학년 때 배구선수로 활동하다 2학년 때 학교 체육대회에서 빌탁돼 육상에 입문했다. 그후 1978년 광주체고 3년 때 100m에서 10초 8의 기록으로 전남신기록을 작성했고, 전남체육회 소속이었던 83년부터 86년까지 전국체육대회 400m 계주 4연패를 달성하며 최고스프린터로 명성을 날렸다. 하

희생·봉사로 제자 사랑...전국체전 메달석권 도전

세단뛰기 '김덕현' 세계적 선수로 키우는 게 꿈

지만 장래가 촉망되던 심감독은 유도, 레슬링 부와의 잣은 시비로 파출소를 들락거렸고, 월 5만원 실업선수, 월봉 35만원의 코치까지 가난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해 20대 때 서울에서 조폭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때 심감독을 바로 잡아준 분들이 은사인 최병량선생과 김응식 조선대학교 교수. 심감독은 "주먹 하나로만 살아가려던 나를 소년체전 전남 대표팀 코치직"을 맡겨 주셨지요. 그 때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오늘의 나는 없었을 겁니다."

이때부터 심기일전한 심감독은 89년 시교육청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해 94년 광주시건설탐방 육상팀 코치, 97년 광주시청 감독으로 승격, 2년간 노폐물의 설움을 당한다. 심감독의 선수사랑과 옥심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심감독은 당시 상무에 있던 전남소속 이형근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목포를 수십 차례 찾아가 강방원 전남육련 회장에게 눈물로 호소,

그를 데려오는데 성공했다.

이형근을 키우면서 '선수없는 감독은 무용지물' 성적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진리를 터득한 심감독은 이후 서민석, 김재다, 김혁, 한국 육상의 희망으로 성장한 박태경 등을 스카우트하면서 '스카우트 귀재'로 이름을 떨치게 됐다.

그러면서 36살의 늦깎이로 결혼, 96년에 구입한 32평 아파트를 부인과 상의해 처분해 선수스카우트 비로 쓰면서 임대아파트로 움금 제자사랑 일화는 '육상에 미친 사나이'로 통하게 됐다.

심감독의 선수사랑과 옥심은 선수들과 '신뢰'로 뭉쳐가 했고, 선수들은 스스로 운동을 하면서 기록향상으로 심감독의 희생과 봉사에 보답하게 된다.

심감독은 "좋은 감독은 선수들을 닥달하지 않습니다.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만 조성하면 선수들은 알아서 운

동합니다"

심감독은 철저히 선수들을 믿는다. 동기를 부여하고, 선수들이 실력에 맞는 대우를 보장해준다. 그 결과 광주시청 육상팀은 지난 2002년 제82회 전국체전에서 출전선수 전원 금메달 획득이라는 신기원을 이루면서 10여년 동안 전국최강의 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심감독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3년 대한체육회 최우수 감독상, 2004년 시민대상과 대한육상연맹 최우수감독상, 2005년 대한체육회 공로상을 수상했다.

심감독의 꿈은 자신의 애제자인 박태경이 올림픽 110m 허들에서 메달을 따내는 것이다.

또 조선대학교에 재학중인 세단뛰기 김덕현을 타 시도에 빼기 않고 광주시청으로 스카우트해 세계적인 선수로 키우고 싶어한다.

심감독은 "예전과 다르게 선수들에게 눈물과 정으로 호소하고 감독 이름으로 스카우트를 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고액의 연봉을 제시하지 못하면 우수선수를 데려올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1등 광주 육상'을 위해 14년을 쉬지 않고 달려온 '영원한 빛고을 육상맨' 심재용감독의 질주는 오늘도 멈추지 않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제 88회 전국체전 준비에 한창인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 감독(오른쪽)이 지난 22일 무등경기장에서 육상대표선수들에게 훈련을 지시하고 있다.

작은만남 큰기쁨

광주일보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급사고는—
본사 판매국(062)220-0551

보은상사

나주시 금성동 나주농협 및 은행
가스오븐렌지 가스보일러 가스전기온수기
각종가스기구 도소매 린나이아/S전문점
☎(061)332-7900

경아네식당(동보아식)
목포시 신정동 삼성아국역
마리나타운, 킹니클라운, 북어해장국, 김치
된장두부찌개, 냉면, 햄버거, 한주문신, 산수수
☎(061)273-8844

서해안의스프레스
목포시 신정동 오이시스목포
포장이사, 일반이사, 원룸이사, 보관이사
사다리차, 물물이사, 문집업체, 월수시모집
☎(061)282-2484

(주)난영이앤디

목포 산정동 삼성아국역
디자인, 인테리어, 출판, 가방류, 상제, 패션 등을
제작 및 판매
☎(061)274-2871

나주곰탕

봉선동 광주은행사거리 대석초교중간
나주곰탕 전문점
대표 강승통
☎(062)653-5532

서해안의스프레스

목포시 신정동 오이시스목포
포장이사, 일반이사, 원룸이사, 보관이사
사다리차, 물물이사, 문집업체, 월수시모집
☎(061)282-2484

김현철공인증개사

봉선동 봉선초교옆 모이상가
아프크, 상가토지 분양권 경매전문
대표 김현철
☎(010)2626-8924

도동보신탕전문점

남구 행운동 효천역부근
보신탕전문점 구)다도보신탕
최고의맛! 최선의 서비스로 믿겠습니다
☎(062)675-8987

금보공인사무소

주월동 새마을금고옆
전세, 월세, 상가, 부동산 상담을 환영합니다
☎(062)430-3060

허브데이 광주·호남총판

두암동 마리나@입구사거리 대암병원앞
허브데이 도·소마 전문점
대표 박일심
☎(062)265-8989

랫돌콩물국수전문봉선점

봉선동 국민은행옆
랫돌콩물국수, 팔죽전문
대표 나미라
☎(062)673-0070

대성공인증개사

장덕동 하남3번도로와 4번도로
토지기록, 공장 임대 및 매매
각종부동산 컨설팅 상담전문
☎(062)852-7950

365근로자대기소

봉황동 이미드록교옆 사방사거리
주식회사, 헬스클럽, 인터넷, 앤디아일, 신축, 증축, 기증
기능공 및 인부일선 365일 일자리수시모집
☎(062)514-9588

수인커피방

대인동 중앙신음료점조합옆 2층
각종 차류
대표 장경자
☎(062)232-6758

남강월화원

두암동 봉선초교옆 세븐일레븐
면회 및 치료
대표 이오화
☎(010)226-2533

박하향해어샵

우신동 말버무시장 제일불광장마트
케트드로이, 불암마리, 펌, 염색업체 등
전품목 10% 할인, 직원구함
☎(062)525-3698

종로쥬얼리

우신동 동신고건너
금, 은, 보석, 시계, 애물상담, 계조직
☎(062)263-5530

홍어한마리

복구 운암동 운암사점 근처
삼합이동, 흥이동, 병이동, 낙지볶음전문
대표 배철옹
☎(062)672-0013

고향맛집

농성동 서구청과 상복회관사이
추어탕 전문
대표 심정식
☎(062)369-3331

청구건설리모델링

월산2동 월강주유소 옆
APT, 상가주택 신축 및 리모델링공사
대표 이월
☎(062)365-0920

광일국악사

사동 대성초교교정 앞
전통악기 제작, 수리전문점
대표 이준수
☎(062)672-5576

동원철학원

방림동 봉선초등학교 옆
30년 전통의 철학원 개원
사주, 작명, 풍수, 택일
☎(062)433-2555

영진식품

진월동 대덕@801동 앞
미역, 미역줄기, 다시마, 각종 해조류
도소매 전문 주부사원수시모집
☎(062)673-5133

아이리스

금남로 1가 진내과 2층
에스프리소스피티전문점 및 안경점
대표 이진령
☎(062)222-8938

3.6.92봉선점

봉선동 모아일기@정문앞
삼삼하고 육질 좋은 구이씨상
을 남·여·주방 남·여모집
☎(011)626-1122

두꺼비게장백반

신안동 코리아나호텔 옆 동백점 앞
개장백반, 이구찜, 이구탕, 꽃게찜
단체손님환영, 양념게장서비스
☎(062)521-4694

옹구마을

궁동 카페리센트리 힐스테이트
매생이, 오리로스, 주물럭 전문점
대표 박예자
☎(062)223-5500

에몽회킹크랩

화정동 화정4동 등시무소 옆
자연산 전문점
대표 김준열
☎(062)383-4292